

1988年 輸出産業實態調査 結果 要約

資料 提供：商工部 輸出振興課

1. 상공부는 최근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체들의 대응노력과 설비투자실태를 深層的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同실태조사는 '88. 2. 13~4. 13(2개월)에 걸쳐 韓國貿易協會, 22개 수출단체와 합동, 16개 업종 2,107개 업체를 대상(회수: 1,276개 업체, 회수율: 60.6%)으로 설문지 自計方式과 조사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응답기입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음.

〈조사표 회수업체 현황〉

부 문 별	회 수	규 모 별	회 수
중화학공업	299개사	대기업	237개사
섬유	616개사		
비섬유 경공업	331개사	중소기업	1,039개사
1차산품	30개사		
계			1,276개사

2. 조사결과 나타난 수출업체의 수출전망, 여건 변화에 대한 업계의 수용내역 국제경쟁력, 그리고 설비투자계획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전망

- '88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9.4% 신장된 564억달러로 지난해 증가율 36.2%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89년 626억달러(10.9% 증가), '90년 689억달러(1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구조면에서는 중화학부문이 자동차, 전자 등을 주도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중공업부문에서는 비교우위 상실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어 수출상품구조 고도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일본과 유럽지역 수출은 느는 반면 미국지역은 감소하고 있어 지역별 무역불균형 현상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나. 여건변화에 대한 업계의 수용내역
- 수출업체의 당면애로사항으로는 원화절상, 원자재 가격상승 및 구독난, 임금상승, 자금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원자재 가격상승 및 求得難의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자금난, 임금상승의 비중이 높아짐.
- 수출업체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원화의 대비 평균환율은 지난해에 비해 12.8% 절상된 729원(연말기준 702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715.15원(전년말대비 10.8% 절상)으로 나타남.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감소율은 10%일 경우 7.8%에 불과하나 15%일 경우 16.2%로 증가하여 가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각종 수출지원 축소로 수출업체의 자금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부족자금을 일반시중은행 차입 등으로 보전하고는 있으나 은행여신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상승폭은 평균 13.1%로 70% 이상이 10~20%를 사업계획에 반영함.
- 이와같은 원화 절상 가속화와 수출지원축소, 임금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6개월전에 비해 77% 이상이 악화됨.
- 다. 국제경쟁력
-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리, 특히 금융비용, 절차복잡 및附

帶費用面에서 두드러지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인건비와 시설임차료에서는 유리하나 금융비용과 수입원자재 가격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품질, 디자인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수출입절차에 있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라. 수출산업의 설비투자 전망

- 수출산업의 공급능력은 국내의 수요상황을 감안할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 마인드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 대부분의 업체는 해외시장 수요가 현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원화 절상 추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의 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업체가 77.6%, 채산성 악화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도 7.4%나 됨.
- '88년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5조 1,697억원으로, 중화학공업이 4조 4,288억원(21.1% 증가) 경공업이 7,204억원(12.3% 증가)으로 나타났음.
- '89, '90년에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철강, 기계, 섬유 등이 점차 투자감소세로 돌아서 '88~'9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1.6%로 수출 증가율 13.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수출공급능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매출액대비 1.9%에 불과하여 선진국 3~4% 수준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고, 투자중점분야도 품질향상, 신제품개발에 두고 있어 기초분야인 연구개발과 신소재개발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마. 종합평가

- 우리수출업체는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려는 자구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하여 수출기업들은 공급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산성 악화로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설비투자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격경쟁력 위주의 경쟁 패턴에서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위주로의 수출상품구조 고도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진함.

3.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투자마인드 위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여 1,000억불대 수출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계시장에서 공급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 수출업체는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및 신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채산성이 맞는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 원가절감을 이룩하여야 함.
 - 한편 정부에서는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역관련 행정수요를 대폭 줄이고 수출부대비 경감을 위한 각종 수수료 인하 등 대외경쟁의 불리요소를 과감히 개선하여 갈 것이며 수출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진작시키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제반 애로요인을 제거하여 수출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가능토록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나갈 것임.

※ 기타 자세한 조사내용은 상공부 수출진흥과(503-9434)나 본회 자료발간과(553-0941/7)로 문의, 열람하시기 바랍니다.